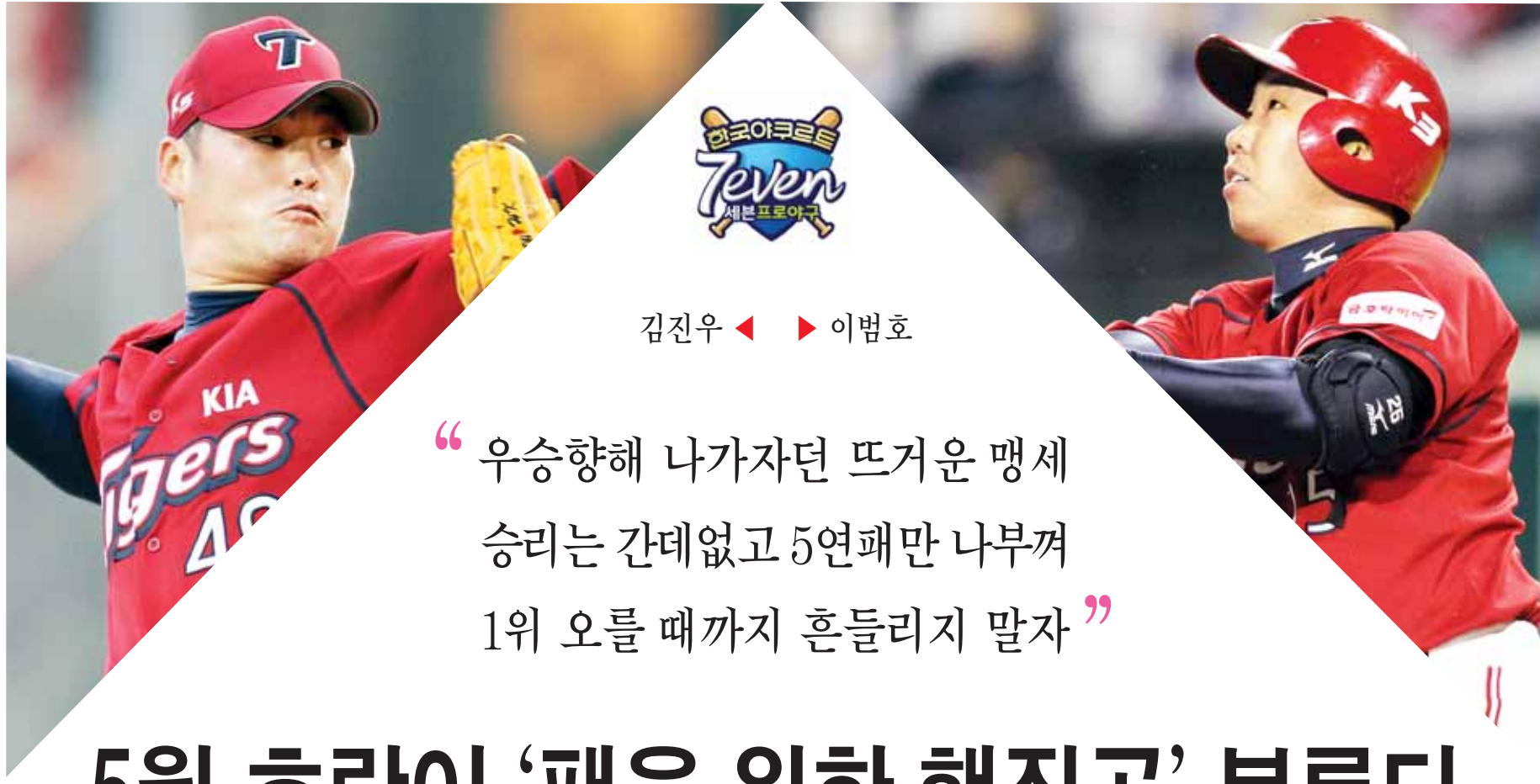


프로야구 전망대



김진우 ◀ ▶ 이범호

“우승 향해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승리는 간데없고 5연패만 나부껴 1위 오를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 5월 호랑이 ‘팬을 위한 행진곡’ 부른다

‘호랑이 군단’이 슬럼프 탈출을 위해 발톱을 세운다.

잘나가던 KIA가 5연패에 빠졌다. 지난주 롯데 그리고 삼성을 상대로 1승도 거두지 못하면서 위기가 찾아왔다.

믿었던 송은범이 무너지면서 연패 탈출에 실패한 KIA는 이번 주 빅딜 이후 처음으로 SK와 상대한다. 트레이드와 연패가 맞물리면서 부담스러운 승부다. 주말에는 잠실로 LG와 경기를 갖는다. 7위에서 추종하고 있는 LG지만 주중 경기 없이 전력 재정비 시간을 갖는 만큼 역시 만만치 않은 승부다.

상대팀의 전력이 갖춰지는 동안 초반 고공행진을 했던 KIA의 투-타는 동반 침체에 빠졌다. 특히 삼성과의 경기에서 보여준 결정적 장면은 KIA가 고민해야 할 부분을 얘기한다.

**#10일 1회 무사 2루**  
톱타자 이용규가 1루수 송구실책을 틈타 2루 진투에 성공했다. 삼성 장원삼이 제구 난조 속에 실책으로 위기를 맞은 만큼 KIA가 초반부터 승기를 잡는 듯했다.

상대 배터리 공략을 위해 벤치에서 내어놓은 작전은 번트. 하지만 작전실책으로 흔들린 것은 오히려 KIA였다.

## 4위 추락... 위기의 KIA

## 주중 광주서 SK와 3연전

## 주말엔 LG전 잠실 원정

## 선두 재도약 향한 기회

김선빈이 번트 작전을 수행하지 못했고 풀카운트에서 포수 파울플라이로 허무하게 돌아섰다. 패스트볼로 이용규가 3루까지 나간 상황이었던 만큼 아쉬움은 더 컸다.

이후 스트레이트 볼넷으로 나지완이 출루하면서 1사 1·3루가 됐지만 최희섭과 이범호가 좌익수 플라이와 3루수 앞 땅볼로 돌아섰다. KIA 타선은 김선빈의 안타와 나지완의 사구로 만들어진 3회 1사 1·2루에서도 득점에 실패하는 등 성급한 승부와 집중력 부족으로 자멸하면서 제구 난조로 고전하던 장원삼에게 승리를 안겨주고 말았다.

**#12일 8회 2사**  
아껴두었던 윤석민이 출격하면서 3점 차

## 프로야구 중간순위 (5월 13일 현재)

팀	경기수	승	패	무	승률	승차
1 넥센	31	21	10	0	0.677	0.0
2 삼성	29	19	10	0	0.655	1.0
3 두산	32	19	12	1	0.613	2.0
4 KIA	31	17	13	1	0.567	3.5
5 롯데	31	15	15	1	0.500	5.5
6 SK	30	14	15	1	0.483	6.0
7 LG	32	14	18	0	0.438	7.5
8 한화	30	8	21	1	0.276	12.0
NC	30	8	21	1	0.276	12.0

리드를 지키고 있던 8회말.

윤석민이 4번째 탈삼진을 잡은 이후 이승엽에게 우전안타를 허용했다. 송은범이 마운드를 넘겨받아 최형우를 중견수 플라이로 돌려세웠지만 체대인을 시작으로 5타자 연속 안타를 허용했다. 마무리 앤서니가 1주일 만에 출격해 볼을 찌지만 이미 점수는 4-5가 됐다.

2-1로 앞선 5회 1사에서 선발 서재응이 강판돼 윤석민이 빠르게 투입됐던 것에 비하면 송은범의 늦어버린 교체는 뼈아팠다.

삼성과의 승부를 앞두고 KIA가 믿었던 것은 막강 볼넷이었다. 그러나 윤석민과

송은범·신승현을 두고도 타선의 침묵 속에 볼넷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 박지훈의 부진, 최향남의 부상 등이 겹치면서 KIA 볼넷은 여전히 위기다. 볼넷의 틀이 갖춰지지 않으면서 추격과 포기의 경계가 애매하다.

김진우가 먼저 연패 탈출을 위해 출격한다. 지난 4월26일 7이닝 1실점의 호투에도 패전투수가 됐던 김진우는 최근 두 경기에서 제구가 흔들리며 5.1이닝과 5이닝 3실점의 성적을 남겼다. 4월19일 이후 승이 없는 김진우는 SK 레이아웃을 상대로 연패 끊기와 3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는다.

이범호는 50번째 1300경기 출장에 6경기를 남겨두고 있다. 이범호는 지난 주 5경기 중 3경기에서 1루 베이스를 밟지 못했다. 햄스트링 부상 이후 힘을 잃은 이범호가 기본 투의 연패가 위기가 될지 오히려 더 큰 도약을 위한 기회가 될지, 이번 주 6연전에 눈길이 쏠린다.

KIA는 지난주 쓴 패배를 통해 약점을 노출했다. 우승이라는 고지를 밟기 위해서는 보강해야 할 약점이다.

KIA의 연패가 위기가 될지 오히려 더 큰 도약을 위한 기회가 될지, 이번 주 6연전에 눈길이 쏠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김상현 트레이드 후 첫 광주경기...팬들 마음도 아프다

### 특 & Talk

매일 그라운드에서는 벤치의 치열한 머리싸움이 펼쳐진다.

강공이나 번트나. 시프트는 어떻게 옮기느냐. 투수 교체를 할 것인가 그대로 밀고 갈 것인가. 매 이닝 매 타석, 공 하나하나에 양팀의 벤치는 분주하다.

9이닝 혹은 12이닝이 채워져야 끝나는 머리싸움. 조명탑이 꺼진 뒤에도 계속되는 머리싸움이 있다. 다양한 경우의 수를 놓고 벌이는, 승패보다 더 큰 부담을 놓고 이뤄지는 ‘트레이드 카드 맞추기’.

각 팀은 가을 마무리 캠프에 이어 겨울과 봄을 거친 스프링캠프를 통해 전력을 만든다. 우승을 향한 전력 꾸리기는 언제나 캠프에서는 순조롭다. ‘예년과 다른 분위기다. 누가 많이 성장했다.’

그러나 뚜껑이 열린 뒤 서서히 한계가 노출된다. 캠프의 기대주는 빛과 함께 지고, 여기저기 아픈 선수가 생겨난다. 겨우내 준비했던 변화는 원래 자리로 돌아오고 상대팀 선수는 더 크게 보인다. 꼼꼼하게 준비했던 전략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면서 트레이드의 고민은 본격화된다.

수면 아래에서 트레이드 논의는 항상 이뤄진다. “누구 줄게, 누구 나오.” 말로는 간단하지만 현실이 되는 단계는 복잡하다.

트레이드를 말하면서 빠지지 않는 단어는 ‘원활’이다. 하지만 최종 도장이 찍히는 순간까지 벤치와 구단은 원인이 아닌 일방적인 원을 원한다. 치열한 승부의 세계에서는 누가 좋든 마부 종교의 계산이 아닌 내가 조금이라도 더 이득이 되는 계산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섭팀에는 한계가 있다. 치열한 순위싸움을 벌이는 라이벌 사이에서는 쉽사리 트레이드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 어느 한쪽이 트레이드 효과로 날개를 때면 승부라는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유망주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는 선수를 삼불리 매물로 내놓지 않는 것도 위험부담 때문이다. 다른 팀 선수로 꼬리표를 떼는 순간 누군가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시장이다. 그래서 선수들은 불만인 ‘안고 죽는’ 경우도 흔하다.

그동안 이뤄졌던 트레이드의 손익



KIA 송은범 SK 김상현

계산서도 고려된다. 흑역사 때문에 ‘다시는 어느 팀과 트레이드를 하지 않겠노라’ 선을 그어 놓은 경우도 있다.

얼마 전 KIA와 SK의 빅딜이 있었지만 송은범과 신승현, 김상현과 진해수가 유니폼을 바꿔입었다.

프로의 세계는 냉정하다. 개인보다는 팀, 선수보다는 성적이 우선이 되는 곳이다. 프로의 계산이 바탕이 된 비즈니스지만 때로는 선수나 떠나지 않는 팬들에게는 단순 계산으로 표현할 수 없는 감성이 있다.

떨림 짐을 꾸리고 있다면 김상현은 “아프다”는 말을 했다. 짧은 한마디지만 트레이드에 대한 모든 소회가 담겨있는 진한 말이다. 트레이드를 통보받은 이들에게는 잘 지내던 애인에게 갑자기 이별을 통보받은 것과 같은 배신감과 서글픔, 새로운 곳에서 시작해야한다는 두려움과 걱정이 우선일 것이다.

하지만 야구는 계속된다. 뭇방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신종길·김원섭·박기남·이용규도 트레이드를 통해 KIA 유니폼을 입은 선수다.

신종길은 롯데와 한화를 돌아 고향 팀에 돌아온 경우다. 두산에서 유니폼을 입었던 김원섭은 섭섭함 보다는 새로운 기회였다고 말한다. 이용규가 정당한 좌타자가 즐비한 LG에 있었더라면 오늘의 국가대표 톱타자는 없었을지도 모른다. 이용규는 자신을 내보냈던 당시 이순철 LG 감독과 한 팀에서 재회할 특별한 인연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 팀 운명을 움직이기도 하는 트레이드. 이번 주 낯선 유니폼을 입은 익숙한 이가 광주를 찾는다.

무등경기장을 찾는 팬들은 KIA의 승리와 김상현의 안타를 동시에 바라보는 묘한 응원을 하게 될 것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타이거 우즈가 13일(이하 한국시간) 18번홀 그린으로 샷을 하기 전 캐디 조 라카버와 코스를 어떻게 공략할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호랑이 시즌 4승... 거침없는 행진

## 타이거 우즈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12년만에 우승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12년만에 제5의 메이저대회로 불리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정상에 올랐다. 우즈는 13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폰테베드라 비치의 소그래스TPC 스타디움 코스(파72·7215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날 더블 보기 1개, 보기 1개를 적어냈지만 버디 5개를 쓸어담아 2언더파 70타를 쳤다.

합계 13언더파 275타를 기록한 우즈는 다펀드 링메르트(스웨덴), 케빈 스트리틀(미국), 제프 매거트(미국) 이상 11언더파 277타를 2타차로 따돌렸다. 우즈가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을 제패한 것은 처음 정상에 오른 2001년 이후 12년 만이다.

우즈는 이번 시즌 4승을 거두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우승 상금도 171만 달러를 받아 상금 랭킹 1위 자리를 굳게 지켰다. 또 PGA 투어 300개 대회에 출전, 78승을 수확하며 최다승 기록 보유자인 샘 스니드(미국·82승)에게 4승차로 다가갔다.

전날 약전후로 경기를 다 끝내지 못해 13일 3라운드 잔여경기를 치른 우즈는 16번홀(파5)에서 버디를 잡아 링



메르트, 세르히오 가르시아(스페인)와 공동 선두로 4라운드에 들어갔다.

챔피언십보다 한 조 앞서 출발한 우즈는 전반에 티박스에서 드라이버를 잡지 않는 신중한 플레이를 펼치면서 2타를 줄여 2위 그룹을 2타차로 제치고 단독 선두로 올라섰다. 12번홀(파4)에서 5m짜리 버디 퍼트를 넣어 3타차까지 벌렸던 우즈는 14번홀(파4)에서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타석이 페어웨이 왼쪽의 워터헤지드에 빠져 버린 것. 1벌타를 받고 친 세

번째 샷도 그린에 못 미쳐 네 번째 샷 만에 그린에 볼을 올렸지만 2m거리의 보기 퍼트마저 놓쳐 한 홀에서 2타를 잃고 말았다.

순식간에 공동 선두로 내려온 우즈는 15번홀(파4)에서도 그린을 놓쳐 힘겹게 파로 막았다. 16번홀(파5)에서도 티샷이 흔들려 러프로 보낸 우즈는 두 번째 샷에서 승부를 걸었다.

오른쪽에 워터 헤지드가 있어 직접 그린을 노리기는 힘들어 보였지만 우즈는 아이언으로 공략했다. 볼은 그린에 못 미쳐 벙커에 빠졌지만 세 번째 샷을 홀 70cm에 붙여 가깝게 버디를 잡고 단독 선두로 나섰다.

챔피언십의 가르시아도 16번홀에서 버디를 잡고 공동 선두에 올랐지만 17번홀(파3)이 악몽이 됐다. 가르시아는 이 홀에서 두 차례나 티 박스에서 친 샷을 물에 빠뜨려 무려 4타를 잃고 우승권에서 멀어졌다. 가르시아는 18번홀(파4)에서도 더블보기를 적어내 공동 8위(7언더파 281타)까지 떨어졌다.

한국 선수 중에는 배상문(27·캘러웨이)이 공동 33위(3언더파 285타)로 가장 성적이 좋았다. 최경주(43·SK텔레콤)는 공동 48위(이븐파 288타)였다.

/연합뉴스